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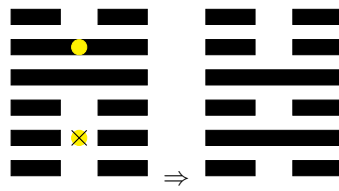
척전법 시뮬레이션

Nova de Hi

2021년 9월 12일

1 동전던지기

• 110	++-	소음
• 000	---	노음
• 011	-++	소음
• 100	+--	소양
• 111	+++	노양
• 101	+-+	소음



2 본괘(本卦)

45. 택지취(澤地萃)



大象傳：澤上於地 萃 君子以除戎器 戒不虞 (택상어지 취 군자이제용기 계불우)

취괘는 나라에서 제향을 올려야 할 괘이다.

마음을 바르고 곧게 가지면 이롭다. 큰 희생이 있어야 길하다.

취의 원뜻은 풀이 밀접해 잇는 것으로, 사람이나 물건이 집중해 잇다는 뜻으로 쓰인다.

땅위에 연못의 물이 모여서 초록이 무성하고 사람이 모여들어 교역이 시작된다.

마치 사막이 오아시스와 같다. 여행하는 자는 오아시스를 만나서 하늘의 은총에 감사한다.

이 괘는 현재의 번영이 하늘이나 조상의 덕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을

잊거나 자기의 힘을 과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연못의 물이 땅 위에 모이는 형상이기 때문에 홍수가 나도 풍작을 이룬다거나

호수, 온천을 나타낸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예로부터 잉어가 하늘을 오르는 상이며 입시, 취직, 인사이동 같은 일에 대길한 괘이다.

위는 못(澤)이고 아래는 땅(地)이다. 취(萃)는 ‘모인다’ 라는 뜻이다. 땅위에 연못이 있으면 물이 모이니 모인다는 뜻의 취(萃)를 괘 이름으로 하였다. 물은 위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이므로 위계질서와 예절을 나타내기도 한다. 물이 모이듯 사람이 한곳으로 모이면 그만큼 재물도 한곳으로 많이 모인다.

이 괘를 얻은 사람은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므로 자신의 실력을 충분히 발휘할 때다. 위 사람들의 의견을 따르면 후회할 일이 없다. 주변에 사람이 많이 모이므로 유통되는 재물도 많아 날로 번창해 나간다. 그러나 사람이 많으면 좋은 일도 많지만 나쁜 일도 많을 수 있다. 다투지 않고 항상 화목을 유지하고 질서를 지키도록 해야 한다.

사업은 풍부한 인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세 확장을 꾀할 시기다.

3 지괘(之卦)

40. 뇌수해(雷水解)



大象傳：雷雨作 解 君子以赦過宥罪 (뇌우작 해 군자이사과유죄)

해괘는 서남쪽이 이롭다.

갈 곳이 없으면 그곳으로 되돌아오는 것이 길하다. 갈 곳이 있으면 빨리 가야 길하다.

해는 문자 그대로 풀린다, 해결한다는 뜻이다.

계절적으로는 춘분에 해당하며, 굳은 얼음이 풀리고 만물이 일제히 싹틀 때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괴롭고 어려웠던 문제도 해결되고 새로운 출발의 시기가 온 것이다.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재빨리 호기를 붙잡아야 한다.

괘의 형상은 봄의 천둥소리와 봄비를 나타낸다. 바로 밭을 갈고 씨부릴 때이다.

태만해서 허송세월을 한다면 1년의 수확이 허사가 된다.

엄동을 벗어난 해방감에 젖는 것도 좋지만, 여기서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

위는 천둥 우레(雷)이고 아래는 물(水)이다. 해(解)는 ‘해결되다’ ‘해소된다’ ‘풀린다’ 라는 뜻이다. 천둥 우레가 진동하여 비를 내리니 얼어붙었던 대지가 풀리는 봄을 의미하므로 해(解)를 괘 이름으로 하였다.

이 괘를 얻은 사람은 지금까지의 고난이 해소되므로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려나가는 운세다. 계획했던 사업이나 마음먹었던 일이 있으면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좋은 기회다. 해(解)는 문제 해결의 근본 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지난날 어려웠던 시절의 과실과 허물은 서로 덮어주고 용서하는 것만이 화합으로 나가는 지름길이다. 그러나 해(解)는 ‘조깅다’ ‘분해한다’ 라는 뜻도 있으므로 지금까지의 상태가 무너져 파국에 이를 수도 있다. 순조롭게 진행되어 왔던 일이라도 방심하거나 노력을 게을리 하면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사업은 열심히 노력하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린다. 새로운 단합이 필요하고 공동 사업을 꾀하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다.